

“차별아지 말라”

약2:1-13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공동서신이란 특별히 지정된 대상이 없이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읽도록 기록된 공적인 서신이란 뜻과 교회들이 공인한 교리적 내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작목적은 첫째로 초대 교회들이 많은 환란과 핍박을 받을 때 교인들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신앙의 실천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경건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이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부자가 교회에 오면 짙짙매며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반대로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오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 자리나 앉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것이 이번 주 크리스찬 파워신문에도 난 예레미아 스티펙목사에 대한 기사입니다. 교인수가 1 만명의 미국대형교회 목사가 새로 부임하며 노숙자로 변신해서 교회로 가서 어슬렁거릴 때 그에게 말을 건 사람은 3 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들어간 스티펙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위원들의 저지를 받고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착석하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 광고시간에 그 교회를 대표장로가 나와 새로운 목사 부임광고 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걸어 들어오는 사람을 본 사람들은 박수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경악하며 놀랐습니다. 그는 강단에 올라가자 마 25 장 31-40 까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오)

물론 교회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와야 하고 지위 있는 사람들도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 영혼은

동일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단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중요함을 따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만약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들을 범죄자로 정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약 2:8-9)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선교하고 구제해도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것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이해하고 받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나눌수록 행복해 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요 행복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도 **“(요 15:12)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4)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도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의 재산을 존중함을 통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도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절을 지키므로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존중함으로 또 그들에게 거짓 증인하지 않고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에 있는 최고의 법입니다. 바로 차별을 금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 장 사랑의 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성취는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18~19 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군사, 산업 모든 분야에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말할 수가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까? 또한 산을 옮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예언하는 능을 가진 사람, 산을 옮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 관점에는 사랑이 없는 능력이나 위대한 믿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할렐루야 노래하며, 함께 침례를 받고, 함께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작정을 해야 합니다. 비장한 결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법궤를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언덕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한발자국을 떼면 하나님께서 지속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부모,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싫어도 억지로라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 8 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허물도 덮고 죄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형식이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하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삶의 진실한 내용이요,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용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차별 당함을 통해 느낀 감정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가 그의 행동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요? 그리고 그 목사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느끼거나 결단한 것들에 대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이웃과 주변인들을(가족 제외)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본 경험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결과(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5. 앞으로 한 주간 동안 1)가정과 2)이웃과 3)교회에서 사랑의 실천 프로젝트를 적용할 각 사람들(3사람)과 그 구체적 내용을 생각하셔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해 실천하실 때는 사랑나눔축제 VIP를 위해서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6.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